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일시	2022. 6. 9.(목) 11:00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구도형 (044-200-5440)
	유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혜 (044-200-5443)
	해운물류국	책임자	과 장 변해중 (044-200-5730)
	연안해운과	담당자	사무관 이창엽 (044-200-5738)
	세월호후속 대책추진단	책임자	과 장 권순태 (044-200-6260)
	선체 관리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국현진 (044-200-6262)

조승환 해수부 장관, 전남 목포지역 정책현장 방문

- 세월호 거치 현장 및 수산시장 유통 현황 등 점검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9일(목) 전남 목포지역의 세월호 거치 현장과 연안여객터미널, 목포종합수산물시장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먼저, 조 장관은 목포신항 세월호 거치현장을 찾아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유가족들과 면담하고 선체의 상태와 안전성 등 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임시 보관기간 동안 선체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태풍, 장마 등 기상변화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라며, 선체와 그 절단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조 장관은 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하여 터미널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연안여객선사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현장에서 “터미널과 여객선은 연간 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관계 기관 모두 재해예방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국민의 인식과 눈높이의 변화에 따라

연안여객선도 단순 운송수단을 넘어 국민의 해양 여가활동을 선도할 수 있는 복합 해양레저시설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조 장관은 목포종합수산물시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유통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어업인들을 만나 수산업계 현안을 청취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시장점포를 방문하여 건멸치, 홍어 등을 구입하면서 “하반기 본격 추진할 상생할인 행사에 전남도와 전통시장이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고, 지역 어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양식여건이 좋은 서남권이 수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자주 들러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